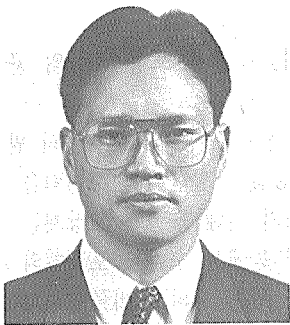




세계 정보통신산업 흐름을 한눈에



이 현 우
본회 정보산업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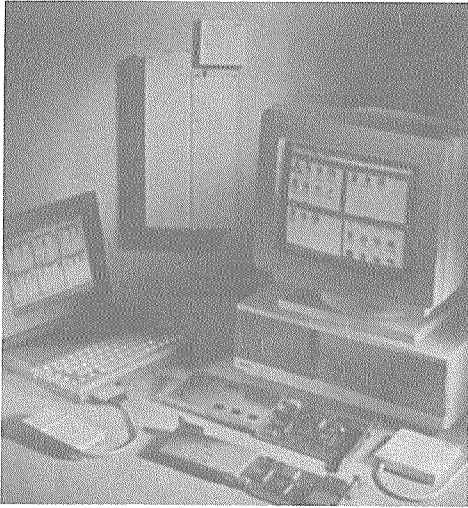
본회에서는 지난 3월 8일부터 15일까지 8일간 독일 Hannover에서 개최된 정보통신 및 사무기기 박람회 (독일어명 : Welt Centrum Buro information Telekommunikation)를 참관하기 위해 업계 및 학계 관계자들로 구성된 참관단을 현지에 파견하였다.

동 박람회를 둘러봄으로서 정보통신관련 첨단기술 및 제품동향을 파악하고 우리의 눈을 거대시장으로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EU(유럽연합)지역으로 초점을 돌려 보았다. 그동안 미주 및 아시아지역으로 편중된 시장 개척활동을 보다 폭 넓게 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보통신 산업 수준을 한단계 끌어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던 이번 참관에서 현지에 도착 전시장을 처음 대면하는 순간부터 전시규모의 방대함에 입이 다물어 지지 않았다. 규모의 방대함이란 자그마치 10만 평의 부지 위에 KOEX규모 전시장 이 무려 25개나 마련되어 있었고, 전시 관람객도 연인원 약 70만 명을 상회해 정보통신관련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박람회임을 입증해 주었다.

그리고 금년도 박람회에는 외국 업체 2,436 개사를 포함하여 59개국에서 총 6,088개사가 출품하여 사상처음 6,000개사를 돌파하는 대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CeBIT '95에서는 정보기술, 텔



▲ 파나소닉의 3D Real Multi Player.

◀ 고정 및 포터블 PC에 적합한 AT & T의 Wave LAN

래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모두 9개 분야의 주제를 갖고 일정을 진행하였다.

전시의 특징으로 꼽는다면 25개의 전시관(Hall)을 10개 전시분야로 구분하여 주요 고객 및 Buyer들에게 보다 효율적인 관람을 하게끔 유도한 것이 눈길을 끌었다.

10개 전시분야의 주요 출품품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기술 분야 (개인용 컴퓨터, 프린터, 멀티미디어), 둘째, 네트워크 컴퓨터분야 (근거리 및 장거리 네트워크, DTM), 셋째, CIM 분야 (CIM관련 S/W 및 H/W, CAD/DAM, 자동인식 장치, 바코드시스템), 넷째, S/W 분야 (응용 S/W, 데이터 베이스, 금융서비스, 각종 S/W 컨설팅), 다섯째 통신기술분야 (영상정보시스템, 이동전화 및 무선통신, 위성통신, ISDN, 비디오텍스, 케이블 TV), 여섯째, 사무기기분야 (POS, 전자출판), 일곱째, 은행

전산 및 채무관리분야 (은행재무관리시스템, 금융전산 업무자동화시스템), 여덟째, 안전기기분야 (과부하보호장치, 경보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아홉째, 연구 및 신기술분야 (컴퓨터 및 전자장비의 재활용), 마지막으로 동반국가전을 들 수 있다.

동반국가전에 대해서 대략 부연 설명 한다면, '89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여 특정국가의 제품만을 종합적으로 전시함으로써 해당국의 컴퓨터 및 정보통신산업에 대한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고 국가간의 유대관계를 한층 강화해 보겠다는 취지에서 설치되었는데 '89년 인도가 처음 설치 운영한 이래 미국, 홍콩, 핀란드, 노르웨이, 동유럽 국가, 캐나다, 그리고 금년에 호주가 동반국가권에 참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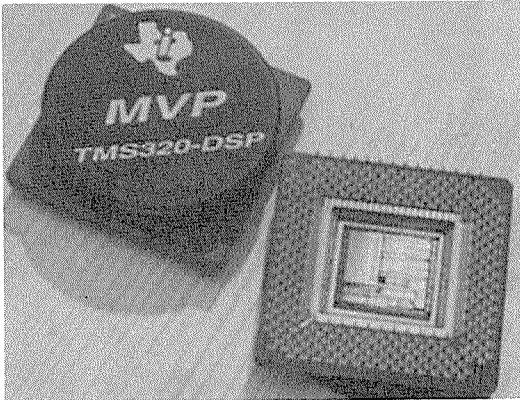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정보통신산업 분야에서 나름대로의 내용을 가지고 세계유수의 기업들과 경쟁키 위해 대기업은 물론 몇몇 중소기업들이

참가하였으나 대부분 업체별로 곳곳에 흩어져 전시되어 제품동향을 파악해 보기는 커녕 우리 업체들이 어디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도 향후에는 “한국관” 형태의 공동참가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아울러 기업 및 제품의 홍보효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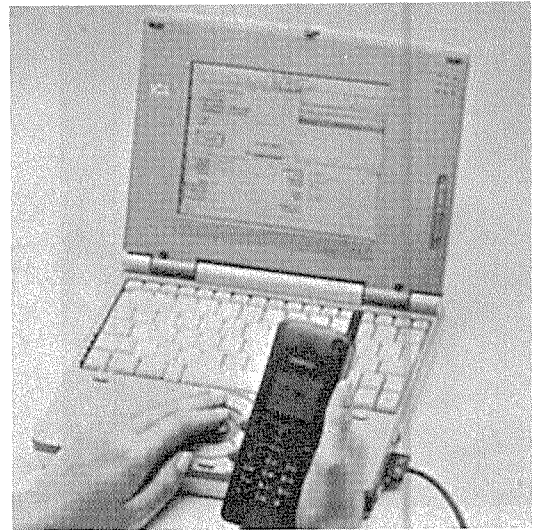
금년도 CeBIT의 전반적인 제품출품 동향은 우선 하드웨어 부문에서도 Digital화, Network화, System화의 뚜렷한 진전을 보여 주었고, 소프트웨어 부분에서는 예년에 비해 전시관이 대폭 늘어남으로서 한층 강화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휴대형 컴퓨팅 기술 및 M/M가 주류를 이뤄 관람객들 이목을 집중시켰다.

예를 들어, 광대역 ISDN(Integrates Services Digital Mode)망을 통한 M/M 데이터 전



▲ TI의 Digital Signal Processor



▲ Nokia의 PCMCIA

송이라든가, Notebook PC와 이동통신망과의 결합이 주요 제품으로 등장한 것이 그것이다.

한편 CeBIT '95는 출품업체수 및 출품분야가 워낙 방대해 관람객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거나 상담을 하는데 다소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급변하는 세계 정보통신산업 흐름을 한눈에 조망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컸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금번 전시회를 보고 난 후 느낀점 중의 가장 큰것은 향후에는 EU시장 진출의 발판을 마련키 위해서 그리고 국산제품에 대한 홍보효과의 극대화 차원에서

공동으로 참가하는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었다(한국관 형태). 일례로 정보통신산업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대만, 호주 등의 국가들도 그들의 국가관을 설치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주요 아·태지역국 CeBIT 출품 업체수>

국명	'85	'90	'95
호주	1	12	142
일본	29	51	29
싱가포르	-	34	45
홍콩	-	46	68
대만	8	211	289
한국	-	2	10

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한국은 다른 아시아 태평양 지역국가들, 즉, 일본, 홍콩, 대만 싱가포르, 호주 등의 경쟁국들에 비해 유럽 시장에 대한 관심이 낮아 국산제품 이미지 제고에 어려움이 있어 EU시장(동유럽 포함)을 주요 정보통신시장 및 협력의 파트너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함을 느꼈다.

한국의 21C 아니 미래가 걸린 정보통신산업의 무궁한 발전과 동분야에서 세계의 선도 국가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글을 맺고자 한다.